

‘사찰 수목장’ 시대 열렸다

‘장사법’ 본격 시행...“장례포교 활성화 기대” 목소리

5월 26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장사법)이 시행됨에 따라 은해사, 전등사, 기림사 등 사찰에서 운영되고 있는 수목장이 합법화의 길이 열렸다. 또 친환경적이고 생태적인 산림에 위치한 많은 사찰들은 이 법의 개정 취지에 맞게 자연장이나 수목장을 조성, 장례 포교의 길을 모색할 수 있게 됐다.

이번에 시행되는 장사법에는 개정과정에서 삭제되었던 불교전통 장례문화인 다비의식을 명문화했으며, 스님의 부도에 대해서도 일반인의 봉안탑과 구별하게 됐다. 묘지(자연장, 수목장 포함) 조성의 경우, 문화재보호구역 내에서는 5천㎡, 일반 사찰에서는 3만㎡ 이하까지

설치할 수 있게 됐다. 봉안당에 안치하는 경우 ‘신도와 그 가족관계에 있는 자’로 규정되었으며, 안치구수는 ‘5천구 이하’다. 개인 및 가족은 100㎡ 미만, 종중 문중은 2000㎡ 이하, 종교단체는 3만㎡ 이하, 법인은 10만㎡ 이상 규모로 조성할 수 있다.

재단법인 이외의 종교단체가 수목장 등을 조성하려면 종교단체 등록증, 지적도 또는 입야도, 실측도 및 토질조사서, 평균통사도 조사서, 사찰의 자연장지의 토지가 종교단체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자연장지 조성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 등의 서류를 갖추어 관할 시

장·군수 등으로부터 조성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한다.

조계종 총무원 사회부 관계자는 “사찰에서는 환경친화적인 자연장이나 수목장을 통해 형식화되어가는 우리 사회의 장례문화를 올바르게 선도함은 물론 포교의 방편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자연장지나 수목장립 조성을 통한 포교 및 대국민 장례(묘)문화를 선도하는 방안 마련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상업성 자연장의 난립으로 수형 및 사찰환경의 훼손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동국대 교수 보광 스님은 “화재로 나무가 소실되면 누가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사찰 수행환경을 포교

명목으로 돈과 바꿀만한 것인지 살펴야 한다”며 “죽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 자연장도 납골당의 전철을 밟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10년전 납골당 유행 당시에도 조계종은 자연장과 같은 논평을 냈고, 전문가들도 똑같은 비전에 고무뎠었다. 하지만 결과는 기대이하였다. 화장 등 장사 등에 관한 인프라 투자와 선도 없이 저비용 고부가가치의 장례에만 치우진 것은 종교단체로서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종성을 구제할 명분이라면 입종 교육 등 죽음에 관한 제문제의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할 때다.

김성우·조동섭 기자

조계종 공식 포살계본 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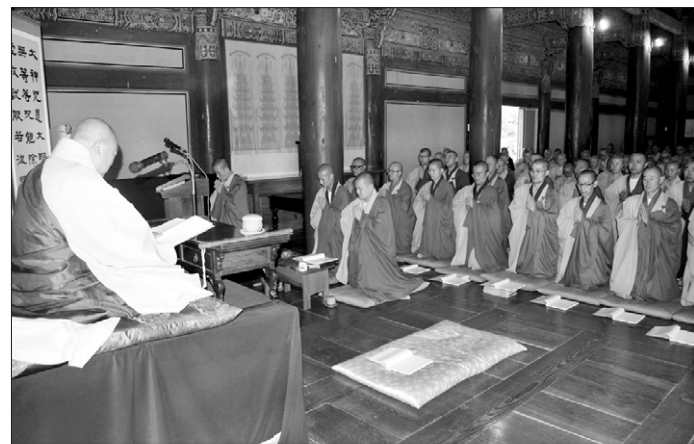
포살적법 설명회 개최...전국 교구본사에 2만부 배포

조계종이 승풍 진작을 위한 대중결계와 포살제도를 실시한 가운데, 포살법회에서 사용할 공식 계본 <범망경보살계포살본>이 최근 발행됐다.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이 2만여 부를 발행해 전국 교구본사에 배포한 <범망경보살계포살본>은 전국 교구본사에서 결계기간 중 1회 실시하도록 규정된 포살법회에 사용될 결정으로 총무원장 지관 스님이 직접 편역한 것. 190여 쪽으로 이뤄진 이 책은 옛 경전의 운치를 살려 세로쓰기로 꾸며졌다. 또 글자 크기를 키워 보기 편

하게 했고 한글세대를 감안해 계송 등을 제외하고는 모두 한글로 풀어 써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지관 스님은 이 책의 서문에서 “부처님께서는 교단홍성, 대중화합, 신심증장, 정법구주를 위해서는 계를 생명처럼 지키면서 포살로 수행의 근간을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며 “포살을 의무적, 필수적으로 행하도록 권장하기 위해 범망경포살본을 편역했다”고 밝혔다.

한편 조계종은 포살계본 발행을 계기로, 포살법회가 동일한 의식으



5월 30일 성타 스님을 포살 법사로 봉행한 불교사. <사진제공=조계종>

로 거행될 수 있도록 오는 5월 30일 조계사에서 교구본사별 포살계사를 초청해 포살적법 설명회를 열었다. 불교사(5월 30일), 유주사(6월 2일),

조사(6월 2일), 신흥사(7월 1일), 해인사(7월 30일) 등 교구본사들은 포살법회 일정을 확정하고 준비에 들어갔다. 김성우 기자

현대불교 영상사업 안내

본사는 현대불교 영상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영상광고는 시각과 청각을 동시에 자극하는 생생한 메시지 전달로 이미지 형성 및 설득이 빠르고 정확합니다.

- 영상사업 분야: 사찰홍보, 행사, 개인다큐(자서전), 단체 사찰순례, 경의, 법문, 기업 성지순례, 기업동영상홍보제작
- 현대불교 영상사업담당/감독: 김동환(前 KBS동아TV촬영감독, 강원대영상학 강사)

문의 : 02-2004-8279

원효 대사 메달 출시

한국 불교의 얼굴, 신라 고승 원효 대사를 메달로 만난다. 한국조폐공사(사업이사 정해운)는 5월 26일, “4차 한국의 인물 시리즈 메달로 신라 고승 원효 대사와 측우기를 발명한 조선 과학자 장영실을 선정해 5월 28일 메달로 출시한다”고 밝혔다. 구입은 조폐공사 홈페이지(www.koreamint.com)와 화동양행(www.hwadong.com)에서 가능하며, 가격은 개당 2만5000원이다. 조동섭 기자

총담스님 소신열반 10주년 영산재

6월 7일 감로사서 봉행...승가사 이전 건립불사 기공식 개최도

“연년이 이어가는 그 사무량심이/ 열백번 금강일심으로 마음 맑으면/ 반열반 홀로서 준비하신 큰 스님/ 대지위에 장자더미 쌓아올려/ 재단에 불붙어 화중생연(火中生蓮) 소신(燒身)공양 하였습니다.” (목장대 동국대 명예교수)



지난 1998년 6월 27일 당시의 몸을 불살라 부처님께 공양하는 소신열반에 들어 우리 사회에 큰 감동을 주었던 총담 스님(사진)을 기리는 추모영산재가 봉행된다. 태고종 가평 감로사(주지 지성)는 6월 7일 오전 11시 등공사리탑(총담스님 부도) 앞에서 ‘총담 대종사 소신열반 10주년 추모영산재’를 봉행한다.

이날 추모법회에서 학술발표회를 갖는 목장대 동국대 명예교수는 미리 배포한 ‘총담 대선사의 소신공양과 한국불교의 희망’이란 논문을 통해 “총담 스님께서는 항상 무량수불아미타불, 무량광불아미타불, 염광광불아미타불, 환광광불아미타불 등 12광불(光佛)을 염송하시며, 삼매의 불을 일으켜 평소 서원하시던 미증유의 소신공양을 감행, 화중생연을 피우시고 육신등공(肉身騰空)을 하신 것”이라고 밝혔다.

목 교수는 또 “우리가 수계의식을 할 때 촛심에 불을 담겨 팔뚝을 뜨는 의식을 가질 때 찰라의 시집이지만 뜨거운 열기에 짙짙 놀라게 된다”면서 “스스로 자신의 몸에 불을 붙여 회신멸지(灰身滅智)하는 소신의례로 입적한다는 것은 그 서원과 발원이 한마음으로 결응되지 아니하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목 교수는 “감로사에서 소신공양으로 열반하신지 10주년이 되는 날 총담 스님의 원력이 시방세계, 한국사회에 새로운 원력과 희망을 점지하는 화염광(火焰光)삼매로 환현하였으니, 우리들도 심핵(心核)삼매의 위력을 발하는 불자가 되어 남북통일과 부처님의 정법 실현하자”고 덧붙였다. 총담 스님은 1930년 삼각산 승

가사에서 박심월 화상을 은·계사로 출가, 62년 권상로 스님 등 종도들과 함께 한국불교의 종관 수호를 위한 7일 단식 철야정진을 했다. 70년 7월 1일 태고종으로의 관할청 등록 당시 관동북 사찰 1호로 승가사를 종단에 회사하는 등 종단발전의 공로를 남겨 태고종도들의 정신적 지도자로 추앙 받아왔다. 스님은 감로사에서 20여년간을 성만하고 <관무량수경>의 16관법 중 일상관(日想觀) 수행을 해왔다. 태고종 승장을 역임한 스님은 조국 통일, 생로병사의 중생 제도, 불교계 화합홍풍 등 세 가지 대원력을 세우고 98년 6월 27일(음력 윤 5월4일) 감로사 미륵부처님 전에 소신공양을 결행했다. 이는 한국불교사상 드문 일로, 당시 우리 사회에 신선한 충격을 줬다.

한편, 이날법회에서는 총담 스님이 70년 전 강건한 서울 왕십리 승가사를 호명산 감로사로 이전하는 ‘사찰이전 건립불사 기공식’도 함께 봉행된다. 승가사는 최근 이 지역이 재개발지구로 고시됨에 따라 이전하게 됐다. 문의 = (031)584-0117

김성우 기자

태고종 보우승가회장 도산 스님 별빈

중양초심원 판결...보우승가회, 총무원장 퇴진운동

불투명한 총무원장 퇴진 운동이 이유인 태고종 보우승가회 회원들이 태고종 총무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던 보우승가회 회장 도산 스님이 별빈(제탈도침)했다.

태고종 중양초심원은 “총무원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소송 제기 및 교계신론 광고게재 관련 해종행위 사건에 대해 5월 21일 심리를 종결하고 보우승가회장 도산을 별빈의 징계에 처했다”고 5월 28일 밝혔다.

중양초심원은 판결문에서 “보우승가회장 도산은 교계지 및 유인물 등에 종단과 종단 대표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승가의 위계질서를 파괴하여 종단의 기강을 무너뜨렸으며,

대외적으로 태고종의 위상을 크게 실추시키는 등의 해종행위를 자행하여 징계법 제4조에 명시된 별빈처분에 관한 사유(조항)에 해당된다”고 명시했다.

이에 대해 보우승가회는 5월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종단 주요소임자의 재산방실 등 잘못을 지적하고 사정을 요구하는 것은 종도의 의무”라며 “중양초심원의 판결에 불복, 사정원에 항소심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보우승가회는 종단 운영 전반에 걸친 의혹을 담은 백서 <종도들에게 고합니다>를 발간, 총무원장 퇴진 서명운동을 펼칠 예정이다. 김성우 기자

조계사 새 주지 세민 스님



조계종 직할교구 조계사 주지(재산관리인)에 세민 스님(사진), 13교구 쌍계사 주지에 상훈 스님이 각각 임명됐다. 총무원장 지관 스님은 5월 30일 총무원 접견실에서 두 스님에게 임명장을 각각 수여했다.

세민 스님은 지관 스님의 망상좌로서 해인사 주지를 역임했으며, 현재 연천 원심원사 주지 소임을 맡고 있다. 상훈 스님은 포교원 포교국장 역임, 현재 구례 불락사 회주를 맡고 있다. 김성우 기자

▲본사 사령
노덕련 命 취재부 수습기자
2008년 5월 26일부

불교 초대법왕 일불존자 서박사 경보 대종사 탄신 94주년, 열반 12주기 일불대재

삼보에 귀의하옵시고,
사해불자 여러분의 법체 강녕을 삼보님전에 원력 비읍니다.

사퇴울 말씀은 다름이 아니옵고 음력 5월 초 아흐렛날은 세계불교 초대법왕이셨고, 대한불교 일불선교종 창종주이신 일불존자의 탄신일이면서 기제일이기에 일불존자 탄신지인 제주도의 일불동산에서 아래와 같이 일불대재를 봉행코저하오니 일불종도와 일불문도는 물론 인연있는 여러 사해불자 여러분의 수희 동참을 바라옵니다.

아래

- 일시 : 불기 2552(2008)년 6월 12일 오전 11시
- 장소 : 제주도 제주시 노형동 산 15-8번지 한라산 일불동산
- 전화 : 총무원 (02)3663-9468, 제주총무원 (064)794-3511

주최 : 대한불교 일불선교종 총무원

주관 : 대한불교 일불선교종 제주총무원

후원 : 일불전국 문도회

일불대재 봉행위원회

- 대 제 주 : 봉암 연종(종정)
- 고 문 : 일불문도회 고문단, 명예회장단, 일불문도회장
- 제 레 위 원 : 정각(원로의장), 동명(원로위원), 청곡(원로위원), 대장(중앙총회 의장), 일일(사정원장), 일불문도회 부회장단
- 봉행위원장 : 법철(총무원장)
- 봉 행 위 원 : 법문, 법보, 현각, 무정, 효봉, 덕암, 일선, 도일, 법원, 진소, 지연, 동월, 상묵, 청원, 대공, 대성, 양원, 정각, 호산, 종호, 일불문도회 자문위원단
- 집전위원장 : 서병렬(문도회 사무총장)
- 집 전 위 원 : 황공심, 최요심, 배상광, 이종근, 윤봉안, 최용국, 서정안, 최창배, 장해철, 최해월, 전혜명, 박교덕, 혜진, 김덕기, 이혜심, 최무송, 현도원, 법작, 송덕성, 유석근, 임창만, 하순애, 최혜숙, 최승부, 이호성, 배상환, 이영선, 최명자, 최명순, 김수임, 서두업, 이종근, 배준성, 김미영, 한순남, 김부삼, 고성규, 이준영, 김진태, 김부삼, 김춘옥
- 준비위원장 : 영수(제주총무원장)
- 준 비 위 원 : 고광, 봉월, 법산, 대성, 경철, 도연, 대원, 철수, 대원, 광순, 철공, 현오, 철중, 철현, 정철, 미산, 공익, 자림, 현오, 법일, 귀일, 철현, 관일, 현송, 동해, 제철, 수철, 제법, 금강, 우철, 상철, 민철, 해동, 유생, 자광, 보광, 향봉, 제철, 도명, 행원, 현덕행, 대련화, 선심화, 선심월, 정법공, 염불심